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만든다

전주시, '제2차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시행 2년차 맞아 올해 세부추진계획 수립

전주시는 전주시 인권정책의 차질반인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3~2027)을 토대로 올 한해 추진할 인권정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수립한 2차 기본계획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 정책의 비전과 중장기목표, 분야별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 시행 2년차를 맞아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사람중심 인권도시 △안전보장 행복도시 △함께하는 공존도시 △인권중심 행정도시의 4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추진전략에 따라 총 49개 추진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안전과 환경, 재난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과 여성·청년·노인·다문화 등 기존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노동자·장애인·아동 등 추가 발굴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대상 관련 사업을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기로 했다.

또한 시는 공무원과 시민, 민간위탁·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감수성 향상과 조직 내 올바른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인권기반의 긍정적인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대면 교육 확대 △실제 사례 중심 교육 △신규공무원 교육 정례화 △6급 팀장에 대한 맞춤형 인권교육 △원거리 근무자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출연기관, 민간위탁·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 등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인권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7월에는 제5기 전주시 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인권위원회는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개선권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원

들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과 인권전문 강사의 특강, 토론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끝으로 올 하반기에는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는 인권공감 문화행사도 열린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과 함께 인권에 대해 소통하기로 했다.

김종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인권은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시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시민 수상 안전요원 양성을 위해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시민 수상안전요원 양성 '맞손'

전주시설공단-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협약 체결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시민 수상 안전요원 양성을 위해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회장 김영도)와 손을 맞잡았다.

공단은 6일 협회와 협약을 맺고 수상 안전요원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수영장 운영 및 안전교육, 타 기관 우수사례 등의 정보제공 △전주시민 및 직원에 대한 안전 분야 자격증 취득 및 장소 제공 △안전요원, 생존지도자 등 인력 추천 및 취업 기회 부여 △기타 수영시설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관련 사업 추진 등이 협약의 골자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수상 안전요원 자격증 시험장으로 보내기샘 국민체육센터를 제공하고, 협회는 보내기샘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요원 자격증 시험을 진행해 시민 수상 안전요원을 배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원

정에 나서야 하는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체육센터 휴식실에 자격증 시험을 진행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상 안전요원 자격증은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가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으로 취득할 경우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 등의 안전요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특히 수상 안전요원 자격증은 실내 수영장 수상 안전요원 자격에 적합한 자격증으로 늘고 있는 지역의 수영장 수요에 비례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영장에 수상 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구대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올해의 책’ 함께 뽑아요”

시,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2024년 전주를 대표할 책을 선정한다.

전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시민들이 1년 동안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2024 전주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주 올해의 책'은 책으로 하나 되는 독서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전주를 대표하는 책을 시민과 함께 선정하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주시민 독서 운동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공개모집을 거쳐 구성된 18명의 추천위원으로부터

총 86권의 도서를 추천받았으며, 이중 전주독서대전 실무기획단 선정위원 회의를 거쳐 총 4부문 12권(어린이(그림)·어린이(글)·청소년·일반 3권씩)의 최종 후보 도서를 선정했다.

먼저 어린이(그림) 도서의 경우 △도시 비행(박현민 저, 참비) △주주때문이야(서영 저, 다그림책(키다리)) △탐만 나면(이순욱 저, 길벗어린이)이 후보 도서로 선정됐다.

어린이(글) 도서는 △갈림길(윤슬 글·양양 그림, 웅진주니어) △그날 밤 우리는(이나영 글·해랑 그림, 시공주니어) △선감화원의 비밀(오혜원 글·신진호 그림, 보리빛소어린이)이 후보에 올랐다.

또한 청소년 도서는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김지나 저, 돌베개) △가장 사적인 관계를 위한 다정한 철학책(이충민 저, 클레이하우스) △느티나무 수호대(김중미 저, 돌베개)의 3권의 책이, 일반 도서는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이주혜 저, 참비) △나의 누수 일지(김신희 저, 여름사랑) △연결된 고통(이기병 저, 아몬드)의 3권이 후보도서로 선정됐다.

시민 선호도 조사는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www.jbook.kr) 또는 휴관 중인 도서관을 제외한 9개 시립도서관과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후보도서 중 최다 득표를 받은 부문별 1권씩 총 4권을 '2024 전주 올해

의 책'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전주 올해의 책'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www.jbook.kr)과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book.kr)을 통해 발표되며, 오는 4월부터 △독서 릴레이 △100일 필사 △저자 초청 강연 △가작 독서 골든벨 등 '2024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시 주제도서 등으로 활용된다.

이강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올 한해 전주시민이 함께 나눌 책을 뽑는 의미있는 과정인 시민 선호도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면서 "매년 선정되는 전주 올해의 책을 통해 전주시민이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책 선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5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위한 '사회적가족 이음 멘토링사업' 멘토 교육

전주시가 올해도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적가족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 5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올해 전주지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가족 이음 멘토링사업'에 참여한 멘토 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추진하는 멘토링사업은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살다가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의 사회·정서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제2기 멘토 24명과 멘티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전속영 전복지지원 담당관 관장이 강사로 나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멘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취업 형태 등 현황 △자립준비청년 사례 중심 교육 △당사자의 인터뷰 동영상 통한 애로사항 청취 △유익사항 △멘토링 관련정보 안내 등을 교육했다.

시는 이번 교육에 이어 오는 4월에는 제2기 멘토링사업 발대식 및 만남의 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이번 교육에 참여한 박준호 멘토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한편으로는 멘토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기존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정서적 지원으로 충출한 전주시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홍보 간담회 가져

전주시와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회장 정삼문)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각각 바이전주우수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바이전주우수상품에 대한 공적사회의 관심을 높여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구청 각 부서장과 구매 담당 주무관이 참여한 가운데 38개사 52개 품목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10여개 회원사들은 △모듈형으로 간편한 시공이 가능한 소음저감 친환경 흡음마감재

△사물 본연의 색을 구현하며 항바이러스·항균 기능을 가진 LED조명 △방부제, 첨가물 없는 찹쌀 김·다시마 부각 △소울·냄새·진동이 없는 원적외선 방출 천장난방기 △실내 습도 조절, 유해 물질 정화 기능이 있는 건축 마감재 등 자사의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구매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구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시 상담회 등을 꾸준히 개최해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판로 개척 및 판로 다양화를 도울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